

가정내 유아의 안전사고 유형과 부모의 변인에 따른 안전지식

김지영¹, 김나림^{2*}

¹호남대학교 유아교육과, ²전주비전대학교 유아교육과

The actual type of domestic safety accident of children and the safety knowledge according to variables of parents

Ji-Young Kim¹, Na-Rim Kim^{2*}

¹Dept. Early Childhood Education, Honam University

²Dept. Early Childhood Education, Vision College of Jeonju

요약 본 연구목적은 가정에서 발생한 유아의 안전사고 유형을 조사하고, 부모의 변인에 따른 안전지식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전북 I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3-5세 자녀를 둔 부모 총 226명이다. 연구도구는 선행연구 및 문헌을 참고하여 연구목적에 적절하게 수정·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일원변량분석 및 Duncan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거의 대다수의 가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6개월 동안 평균 1.78회 정도 안전사고가 일어났다. 유아의 안전사고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사고, 충돌 및 충격에 의한 사고, 협착이나 끼임 사고, 추락사고, 찢림과 베임 사고, 화상, 이물질 삼킴과 흡입사고 순으로 발생되었다. 둘째, 부모 모두 '평균 정도 수준'의 안전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추락'과 '응급처치' 영역에서 안전지식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전업주부인 어머니가 취업한 어머니보다 전반적인 안전지식과 '화상'에 대한 안전지식이 높았다.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 '화재' 영역에서 안전지식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안전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모안전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ypes of domestic safety accidents involving children and to verify the difference of safety knowledge according to variables of parents. Subjects include 226 parents who have 3-5 year old infants enrolled in kindergartens and day care centers in I-city, Jeollabuk-do. The study tools are modified and complemented questionnaire for the study purpose referred to the preceding research data and the literature. For the processing of collected data,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one-way ANOVA, and the Duncan post-test were utilized using the SPSS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afety accidents occurred at the majority of homes which have infant children. On average, the occurrence frequency was 1.78 times per six months. The accidents involving infants occurred in the order of drop or slip, crash or impact, stricture or jamming, fall, stab or cut, burn, swallow or inhalation. Second, both parents had an average level of safety knowledge. There was a distinction in the areas of 'fall' and 'first aid' according to the mother's age. In addition, stay-at-home mothers had the higher level of safety knowledge compared with working mothers in the areas of 'general safety knowledge' and 'fire'. There was a distinction in the area of 'fire' according to the father's age. Given these findings, safety training programs for parents to improve safety knowledge needs to be developed.

Keywords : child safety, domestic safety accident of children, parent's safety knowledge, safety accident, safety knowledge

*Corresponding Author : Na-Rim Kim(Vision College of Jeonju)

Tel: +82-63-220-3962 email: nrkim@jvision.ac.kr

Received September 1, 2017

Revised (1st September 25, 2017, 2nd September 27, 2017, 3rd October 12, 2017)

Accepted October 13, 2017

Published October 31, 20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안전은 인간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인간은 누구나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물리적으로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안전 불감증으로 안전을 경시하며, 사고가 일어난 후에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안전사고는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지만,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통해 우발적인 사고는 막을 수 있다.

영유아기 안전사고 대부분은 가정에서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3년간(13-15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어린이 안전사고 분석한 결과, 총 76,845건 중 69.1%(53,072건)가 가정에서 발생하였고(한국소비자원 2016. 6.30일자 보도자료)[1], 유아기 사고는 21.6%로 걸음마기 다음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된 시기로 조사되었다. 영유아기 안전사고 장소 중 과반수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는 가장 안전할 것으로 인식되는 가정이 안전 사각지대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영유아기가 안전사고에 가장 취약한 연령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영유아는 탐색과 경험을 통해 학습하며 성장해간다. 학습과 탐색은 주로 심리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영유아기의 안전사고는 주로 가정에서 발생된다. 영유아기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성인 중심으로 구성된 시설·설비와 영유아의 발달적 특징 때문이다. 영유아의 신체적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구성된 성인 중심의 시설·설비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는 대소근육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아 신체를 조절하고 움직이는 능력이 제한적이며, 위험한 상황에 대한 지각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부모는 안전한 가정환경에 대한 지식과 영유아의 발달적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1]. 더불어 가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대부분 부모의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 부족 및 가정내 안전 수칙의 부재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부모는 안전에 대한 정보 습득과 함께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2].

부모는 대체적으로 가정내 위험 환경에 대한 지식이 낮고, 자녀 안전에 대한 지식과 응급대처를 잘 할 수 있으리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3]. 부모의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부적절한 안전지식은 가정 내 안전사고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부모의 주의와 안전에 대한 시각으로 영유아 안전사고의 90% 이상은 미리 예방이 가능하다[4].

한국소비자원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내 영유아 안전사고는 추락사고, 넘어짐, 부딪힘, 이물질 흡입사고 순으로 발생하였으며[1], 특히 유아의 안전사고는 주로 침실, 계단, 욕실 및 화장실에서 발생하였다[5]. 영유아의 신체발달로 이동능력이 생기고, 자아개념이 형성되는 시기인 유아기 초기에는 이전 영아기에 비하여 더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유아기 안전사고는 유아가 가진 발달적 특징과 부모 변인에 기인한다. 유아가 가진 발달적 특징은 안전사고의 발생율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유아기는 호기심과 탐구 욕구가 왕성하지만 주위의 위험을 인지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해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부모의 다양한 개인변인은 유아기 안전사고의 요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으며,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높으며[6], 부모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실천 수준이 높을수록 사고 발생 비율이 낮았다[7, 8, 9, 10]. 유아기 안전사고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유아기 안전사고는 보호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발생한 안전사고의 원인을 본인들의 실수와 부주의로 인식하고 있었다[11]. 그러나 실제적으로 부모는 안전사고의 구체적인 예방 전략 및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지 못하였다. 이는 부모의 부주의와 무관심이 아동에게 물리적·심리적으로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의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영유아 안전사고관련 선행연구는 가정 내 안전사고 실태를 파악하거나[12], 영유아의 사고 발생과 부모 변인에 따른 차이를 조사한 연구이었다[13]. 또한 부모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이후에 안전지식과 효과를 검증한 연구[10, 14], 유아의 안전사고에 대한 부모의 안전지식[15], 부모의 안전실천 수준에 따른 가정 내 영유아 자녀의 안전사고 경험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5]. 선행연구 대부분은 부모의 일반적인 안전지식을 살펴보았을 뿐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지식을 살펴본 연

구는 아직까지 실시되지 않았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부모의 안전지식에 따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유아기 안전사고에 대한 부모의 안전지식을 살펴본 연구는 국내에서 전무한 실정이다. 더불어 부모의 변인에 따른 안전지식의 차이와 가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을 조사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유아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필요하지만, 유아 안전사고의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 역시 가정이기 때문에 부모의 안전지식은 필수적이다[1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유아기 안전사고 유형을 조사하고, 부모의 변인에 따른 안전지식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가정에서 발생한 유아의 안전사고 유형은 어떠한가?
- 둘째, 부모의 배경변인에 따라 안전지식은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전라북도 I시에 소재한 3곳의 어린이집과 2곳의 유치원에 만 3-5세 연령의 자녀가 다니는 부모 총 226명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배경을 제시하면 Table 1과 같다.

어머니의 연령에서 35세 이상-39세 이하의 경우(34.5%)가 가장 많았고, 30세 이상-34세 이하(32.8%), 40세 이상(22.1%)의 순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에서는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55.7%),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경우(30.1%), 고등학교 졸업 이하(14.2%) 순이었다. 취업한 어머니는 60.2%이었고, 전업주부인 경우는 39.8%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연령에서 40세 이상(42.5%)이 가장 많았고, 30세 이상-34세 이하(34.5%), 35세 이상-39세 이하(23.0%) 순이었다. 전문대를 졸업한 아버지는 55.7%이었고,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아버지는 44.3%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Assortment		Peoples (N)	Percent (%)
age	under 30 years	12	10.6
	30-34 years	37	32.8
	35-39 years	39	34.5
	over 40 years	25	22.1
Mother Education level	below high school graduate	16	14.2
	college graduate	63	55.7
	higher than university graduate	34	30.1
career	stay-at-home mother	45	39.8
	working mother	68	60.2
Total		113	100.0
Father age	30-34 years	39	34.5
	35-39 years	26	23.0
	over 40 years	48	42.5
	college graduate	63	55.7
Father Education level	higher than university graduate	50	44.3
	Total	113	100.0

2.2 연구도구

2.2.1 유아 안전사고 실태

가정에서 발생한 유아의 안전사고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선행연구 및 문헌[14, 16, 17]을 참고하여 연구목적에 적절하게 수정·보완하였다. 질문지의 범주와 문항의 적절성은 유아교육 전문가 2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질문지는 가정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여부를 묻는 항목과 안전사고 유형을 체크하는 항목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안전사고 유형은 넘어짐, 충돌 및 충격, 협착 및 끼임, 추락, 절림 및 베임, 화상, 삼킴 및 흡입의 내용이다. 가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유형은 다중 체크할 수 있다.

Table 2. The Questionnaire for domestic safety accident

Assortment	The number of questions
The Yes or No of safety accident	Yes/No 1
Drop/ Slip	Swell/Bruise 1
Crash/Impact	Bruise/Fracture/Swell 1
Stricture/Jamming	Skin damage/Scratch 1
Fall	Fracture/Swell/Sprain 1
Stab/Cut	Bleeding/Skin damage 1
Burn	Skin damage/Lacerated wound 1
Swallow/Inhalation	Suffocation 1
etc.	To get bitten by animals 1

2.2.2 부모의 안전지식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아기 안전사고에 대한 부모의 안전지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선행연구[10, 14, 16, 17, 19]를 참고하여 연구목적에 적절하게 수정·보완하였다. 질문지의 범주와 문항의 적절성은 유아교육 전문가 2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질문지는 부모의 일반적인 배경과 안전지식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안전지식의 범주는 추락, 화재, 중독, 질식, 응급처치, 놀잇감, 화상으로 총 20문항으로 구분되었다. 질문지의 점수화 방법은 각 문항에 대해 정답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1점, 오답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0점으로 계산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범주에 관한 안전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질문지의 세부적인 내용과 문항수 및 신뢰도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The Questionnaire for parent's safety knowledge

Assortment	The number of questions	Cronbach α
Fall	the furniture easy to fall, the safety device to prevent from fall	2 .73
Fire	the fire protection system, the evacuation system	3 .76
Poisoning	the keeping method of toxic agent, the instruction and keeping method of medicine	3 .82
Suffocation	types of objects causing suffocation, size of objects	2 .80
First aid	the right treatment in emergency	4 .77
Toys	the method of use, the method of management	3 .80
Burn	the keeping method of electric heater, the knowledge of things and situations which trigger burn	3 .82

2.3 연구절차

2.3.1 예비조사

질문지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유아기 자녀를 둔 1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2016년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질문지의 문항구성 및 내용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본 조사에서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2.3.2 본조사

본 조사는 2016년 4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2주간

전북 I시에 있는 유치원 2개 기관과 어린이집 3개 기관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유아교육기관에 방문하여 원장과 교사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질문지는 가정통신문과 함께 유아 편으로 가정에 배부하였다. 질문지는 사전에 연구동의 의사를 밝힌 부모 360명에게 배부되었고, 어머니용 질문지는 132부(회수율: 73.3%), 아버지용 질문지는 118부(회수율: 65.5%)가 회수되었다. 이 중에서 응답이 누락된 질문지는 제외하고 어머니용과 아버지용 질문지 총 226부를 최종 연구 자료로 선정하였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PC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배경과 부모의 안전지식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부모의 변인에 따른 안전지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가정 내 발생한 유아 안전사고 실태

가정 내 안전사고 발생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The safety accident occurred at home

Assortment	Peoples(N)	Percent(%)
experiencing occurrence of safety accident	106	93.8
not experiencing of safety accident	13	6.2
Total		100.0

가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93.8%이었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6.2%로 나타났다. 즉 거의 대부분의 유아를 둔 가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의 유형을 다중응답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The types of safety accident occurred at home

Assortment		Peoples (N)	Percent (%)
Drop/Slip	Swell/Bruise	67	35.5
Crash/Impact	Bruise/Fracture/Swell	45	23.8
Stricture/Jamming	Skin damage/Scratch	23	12.1
Fall	Fracture/Swell/Sprain	21	11.1
Stab/Cut	Bleeding/Skin damage	17	9.0
Fire	Skin damage/Lacerated wound	9	4.8
Swallow/Inhalation	Suffocation	5	2.6
etc	To be bitten by animals	2	1.1
Total			100.0

가정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의 유형을 범주별로 살펴보면,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35.5%), 충돌 및 충격에 의한 사고(23.8%), 협착이나 끼임(12.1%), 추락 사고(11.1%), 절림과 베임 사고(9.0%), 화상(4.8%), 이물질 삼킴과 흡입사고(2.6%), 동물에게 물리는 사고(1.1%)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유아는 타박상, 골절, 부종, 피부손상, 열상, 찰과상 등의 신체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2 부모 변인에 따른 안전지식의 차이

부모의 안전지식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Table 6과 같다.

Table 6. The general tendency toward safety knowledge between mother and father

Assortment	Mother		Father	
	M	sd	M	sd
Fall	.54	.34	.57	.35
Fire	.39	.21	.42	.20
Poisoning	.72	.28	.70	.27
Suffocation	.46	.34	.36	.32
First aid	.63	.23	.61	.23
Toys	.79	.27	.80	.30
Burn	.68	.26	.65	.29
Sum	.58	.11	.57	.12

어머니의 안전지식 평균점수는 .5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안전지식 점수를 하위 범주별로 살펴보면, ‘놀잇감’(M=.79), ‘중독’(M=.72), ‘화상’(M=.68), ‘응급처치’(M=.63), ‘추락’(M=.54), ‘질식’(M=.46), ‘화재’(M=.3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안전지식 평균점수는 .5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안전지식 점수를 하위 범주별로 살펴보면, ‘놀잇감’(M=.80),

‘중독’(M=.70), ‘화상’(M=.65), ‘응급처치’(M=.61), ‘추락’(M=.57), ‘화재’(M=.42), ‘질식’(M=.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안전지식 점수는 보통정도이며, ‘놀잇감’에 관한 안전지식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중독’, ‘화상’, ‘응급처치’에 대한 순으로 정확한 안전지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변인에 따른 안전지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Table 7과 같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안전지식의 총합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F=2.27, p>.05), 하위 범주 중에서 ‘추락’(F=4.01, p<.01)과 ‘응급처치’(F=2.72, p<.05)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추락’의 안전지식은 34세 미만의 어머니가 35세 이상의 어머니보다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응급처치’에서는 30세 이상의 어머니가 30세 미만의 어머니보다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라 안전지식의 총합 점수(t=2.35, p<.05)와 ‘화상’(t=2.94, p<.01)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전업주부인 어머니가 취업한 어머니보다 정확한 안전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특히 ‘화상’에 관한 올바른 안전지식을 갖고 있었다.

Table 7. The difference is safety knowledge according to variable of mother

Variable	subcategory	fall	fire	poisoning	suffocation	first aid	toys	burn	Total
Age	under 30	.66(.32)a	.35(.22)	.63(.26)	.36(.26)	.45(.27)b	.75(.33)	.54(.14)	.50(.10)
	30-34 years	.66(.31)a	.37(.18)	.70(.25)	.37(.38)	.62(.20)a	.85(.23)	.64(.23)	.57(.11)
	35-39 years	.47(.32)b	.36(.22)	.75(.29)	.50(.32)	.64(.27)a	.75(.30)	.75(.30)	.58(.13)
	over 40	.42(.34)b	.49(.21)	.73(.30)	.54(.28)	.68(.15)a	.78(.25)	.68(.24)	.61(.08)
	F	4.01**	2.27	.56	1.88	2.72*	.91	2.54	2.27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53(.34)	.45(.13)	.77(.23)	.47(.24)	.65(.12)	.84(.23)	.78(.25)	.62(.06)
	college graduate	.53(.35)	.38(.22)	.72(.29)	.40(.34)	.63(.20)	.80(.26)	.64(.26)	.57(.12)
	higher than university graduation	.55(.32)	.38(.22)	.68(.28)	.53(.34)	.60(.31)	.75(.30)	.70(.24)	.58(.13)
	F	.05	.74	.52	1.75	.34	.72	2.07	1.30
career	stay-at-home mother	.50(.30)	.44(.20)	.74(.31)	.52(.31)	.67(.23)	.77(.27)	.77(.25)	.61(.12)
	working mother	.57(.35)	.36(.21)	.70(.25)	.42(.34)	.60(.23)	.80(.27)	.62(.25)	.56(.11)
	t	-1.17	1.84	.65	1.58	1.42	-.45	2.94**	2.35*

*p<.05, **p<.01

아버지의 변인에 따른 안전지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Table 8과 같다.

Table 8. The difference in safety knowledge according to variable of father

variable	subcategory	fall	fire	poisoning	suffocation	first aid	toys	burn	total
age	30-34 years	.60 (.36)	.44(.19a)	.65(.28)	.35(.34)	.56 (.26)	.76 (.35)	.65 (.26)	.56 (.11)
	35-39 years	.55 (.32)	.34(.15b)	.74(.21)	.41(.31)	.61 (.23)	.82(28)	.75 (.29)	.57 (.12)
	over 40 years	.55 (.36)	.46 (.22)a	.72 (.30)	.35 (.32)	.65 (.19)	.83 (.27)	.59 (.30)	.58 (.12)
	F	.24	3.83*	.90	.27	1.69	.51	2.51	.59
education	college graduate	.57 (.31)	.45(.18)	.70(.27)	.35(.33)	.62 (.20)	.83(29)	.62(29)	.58 (.11)
	higher than university graduation	.56 (.39)	.40 (.22)	.70 (.28)	.38 (.31)	.60 (.26)	.78 (.32)	.68(28)	.56 (.13)
	t	.28	1.33	.17	-.51	.59	.91	-.96	.63

*p<.05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 안전지식의 총합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F=.59, p>.05), 하위 범주 중에서 ‘화재’(F=3.83, p<.05)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화재’의 안전지식은 34세 이하의 연령을 지닌 아버지와 40세 이상 연령의 아버지가 30대 중반의 아버지보다 ‘화재’에 관한 올바른 안전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서는 안전지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일어난 유아의 안전사고 유형과 부모의 변인에 따른 안전지식의 차이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거의 대다수 가정에서 유아 안전사고가 일어났으며, 안전사고는 6개월에 평균 1.78회 정도 발생하였다. 가정내 안전사고는 교통사고보다 위험성은 낮지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4].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 중에서 거의 대다수(96.2%)의 유아가 가정에서 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결과와 일맥상통

한다[20]. 또한 만 5세 자녀를 둔 가정에서 안전사고가 평균 1.2회 정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결과[21]보다는 빈도가 약간 높지만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안전사고의 사례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난 이유는 만 3,4세 유아를 연구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만 3,4세 유아는 만 5세 유아보다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신체조절 능력과 위험한 상황을 지각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인지능력의 부족으로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아에게 발생한 안전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거실과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상당수의 유아가 충돌이나 충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경험하였다. 또한 신체의 일부가 문과 가구 경첩·서랍에 끼이는 사고를 경험하였고, 의자나 침실가구 등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추락사고, 학용품이나 포크·날카로운 물건에 찔리거나 베이는 사고, 뜨거운 물이나 커피, 목욕물에 화상을 입는 사고, 작은 물건을 삼키는 흡입사고 순으로 안전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동물에게 물리는 안전사고도 일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를 통해 대부분의 유아들은 타박상, 찰과상, 부종, 염좌 등의 신체적 상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 결과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22]. 또한 KCA가 발표한 유아기(4세-6세) 때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과[1] 선행연구[3, 17]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영유아의 안전사고는 가정 내에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전사고는 예방을 통해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부모는 영유아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중재자임을 인식하고[23],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의 안전지식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평균 정도 수준’의 안전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관한 부모의 안전지식 수준이 보통 정도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 부모의 가정 내 안전 및 응급처치 지식의 정답률이 평균 수준으로 밝혀진 선행연구[3, 16]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안전지식의 항목 중에서 부모 모두 ‘놀임감에 대한 안전지식’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중독’, ‘화상’, ‘응급처치’, ‘추

락' 순으로 정확한 안전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다행스러운 점은 가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유아기 발달 특성상 더욱 필요하며 중요한 영역에 대한 안전지식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결과에서 주목할 사실은 부모 모두 '평균 정도 수준'의 안전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표준편차가 높으므로 각 부모별로 안전지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영유아기는 가정환경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이며[24], 유아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25], 부모는 올바른 안전지식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모들이 자녀의 발달시기에 필요하며 적절한 안전지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및 매체를 활용한 부모교육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변인에 따른 안전지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추락'과 '응급처치'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의 연령이 어릴수록 '추락'에 관한 올바른 안전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의 연령이 많을수록 '응급처치'에 대한 안전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 어린 어머니의 경우에는 영아기 자녀로 인해 추락할 수 있는 높이와 물건,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방안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나이가 많은 어머니일수록 다양한 안전사고의 경험으로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을 갖출 기회가 많았을 것이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안전지식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알고 있는 안전지식은 어머니의 학력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라 안전지식의 총합 점수와 '화상' 안전지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전업주부인 어머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보다 전반적인 안전지식과 '화상'에 관한 올바른 안전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부인 어머니가 취업한 어머니보다 안전지식 수준이 높음으로 밝혀진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26]. 이는 직장생활을 하는 어머니는 전업주부인 어머니보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안전지식과 유아교육기관의 안전교육 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안전지식을 형성할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다양한 영역에 대한 안전지식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변인에 따른 안전지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 '화재' 항목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34세 이하 연령의 아버지와 40세 이상 연령의 아버지가 30대 중반의 아버지보다 '화재'에 대한 올바른 안전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안전지식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알고 있는 안전지식은 아버지의 학력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버지의 안전지식은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 결과[18]와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는 최근 6개월 동안 유아가 실제 경험한 안전사고 현황을 조사하고 부모의 안전지식 수준을 밝힘으로써 유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와 부모를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표집방법과 사례수의 제한점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유아기에는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도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연구도구와 연구방법을 수정·보완하여 심화 확장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References

- [1] Korea Consumer Agency, [Internet]KSA: Child safety accidents are most common at home, c2016 [cited 2016. June, 30], Available From : <http://www.kca.go.kr>. (accessed Sep. 10. 2017)
- [2] D. K. Routh, "Injury Control Research in Pediatric Psychology: A Commentary and a Proposal",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vol. 22, pp. 495-498, 1997. DOI: <https://doi.org/10.1093/jpepsy/22.4.495>
- [3] S. H. Yoon, Y. K. Jeong,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Awareness and Practice on Safety of Mothers with Infant and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 7, no. 1. pp. 115-134, 2012.
- [4] A. W. Fickling, J, "The Construction and Testing of a Measure of the Parental Knowledge of Home-based Injury Risk to Preschool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at Baltimore, Maryland, 1993.
- [5] S. H. Ha, H. A. Seo, "Infants' and Children's Safety Accident Experience based on Parental Safety Practice", *The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 13, no. 1. pp. 31-55, 2014
- [6] K. Wicklund, S. Moss, F. Frost, "Effects of maternal education, age, and parity of fatal infant acciden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74, no. 10. pp. 1150-1152, 1984. DOI: <https://doi.org/10.2105/AJPH.74.10.1150>
- [7] A. Dalsanta, "Childhood unintentional injuries: factors predicting common injuries among preschooler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 USA, 1993.
- [8] K. Alfano, "Factors associated with parental practice, knowledge and perception of child safety in the home environment", Doctoral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USA, 1996.
- [9] A. Dal Santo, J. R. M. Goodman, K. Jackson, "Childhood unintentional injuries: Factors predicting injury risk among preschooler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vol. 29, no. 4. pp. 273-283, 2004.
DOI: <https://doi.org/10.1093/jpepsy/jsh029>
- [10] H. G. Kim, "Mothers' Knowledge and Practice of Home Safety for Young Children", *Dongnam Health College*, vol. 25, no. 1. pp. 65-79, 2007.
- [11] H. G. Kim, M. S. Kim, "The Effectiveness of a Safety Program on Mother's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to Safety Injury at Home",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45. no. 2. pp. 33-50, 2007.
- [12] I. O. Kim, S. H. Sin, "A Survey on the Experience of Accident of Infant, Toddler and Preschooler, and the Education about Emergency Care for Par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 8, no. 2. pp. 174-182, 2002.
- [13] S. W. Park, S. W. Heo, Y. J. Lee, J. H. Park, "Non-Fatal Injuries among Preschool Children in Daegu and Kyungpook", *J Prev Med Public Health*, vol. 37, no. 3. pp. 274-281, 2004.
- [14] S. H. Kang, "A Study of Developing Safety Education Program for Parents based on the Analysis of Childhood Household Injur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2003.
- [15] H. S. Park, J. J. Kim, S. S. Ji,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Safety Knowledge and Safety Education Performance and Young Children's Safety Knowledge and Ability to Predict Risk Elements",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vol. 12, no. 2. pp. 221-241, 2011.
- [16] J. S. Kwon, "The Effects of Education on Child Accident Prevention at Home and First Aid Trea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Gimhae, 2011.
- [17] Y. S. Kim, J. J. Yoon, J. J. Kim, "Early Childhood Safety Management", pp. 1-367. *Kyounggi: Knowledge Community*, 2011.
- [18] I. J. Kim, "A Study on Parents' Knowledge and Practice about Children's Safety and Needs for Parents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2006.
- [19] H. S. Kim, "The Parents Consciousness and Performance about the Infants Safety and Home Safety Circumst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2006.
- [20] J. Y. Yoon, "In-Home Safety Acci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and Mothers' Emergency Trea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2012.
- [21] H. S. Lee, "A Study on Actual Condition of Young Children Safety Accidents at Home and Main Fosterers' Recogni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 Ju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Kong Ju. pp. 8-296, 2006.
- [22] R. I. Ha, Y. J. Im, "Factors Affecting Parental Practices of In-Home Injury Prevention for Young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27, no. 2. pp. 254-266, 2013.
DOI: <https://doi.org/10.5932/JKPHN.2013.27.2.254>
- [23] E. Towner, T. Dowswell, T. Jarvis, "A Systemic Review of What Works in Preventing Childhood Unintentional Injuries", *Injury Prevention*, vol. 7. no. 3. pp. 249-253, 2001.
DOI: <https://doi.org/10.1136/ip.7.3.249>
- [24] C. Barbour, N. H. Barbour, "Families Schools, and Communities: Building Partnerships for educating Children",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 Prentice Hall, 1997.
- [25] J. H. Gralinski, C. B. Kopp, "Everyday Rules for Behavior: Mother's requests to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9, pp. 573-584, 1993.
DOI: <https://doi.org/10.1037/0012-1649.29.3.573>
- [26] K. H. Hong, "A Study on Parent's Safety Knowledge and Practice for Family Safety", *Bulletin of Dongnam Health College*, vol. 23, no. 1, pp. 195-120, 2005.

김 지 영(Ji-Young Kim)

[정회원]



- 2002년 2월 :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문학석사)
- 2005년 2월 :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문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호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과정, 유아멀티미디어

김 나 림(Na-Rim Kim)

[정회원]



- 199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문학석사)
- 2005년 2월 : 원광대학교 유아교육과(문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전주비전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언어교육, 유아음악교육, 교사교육, 영유아안전관리